민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

검찰청법·형소법개정안 국회 제출
172명 전원 공동 발의자 서명
6대범죄 검찰 수사 개시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발의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며 "검찰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 수사권이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도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임 시절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며 차용했던 단어"라며 "검사가 당연히 가진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근거조항인 196조를 삭제했다. 이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 혹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3에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을 권한 규정을 삭제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각종 영장의 청구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에는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대신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후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편 대검은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기정 "광주, 사회적가치 선도 새 경제모델 전환"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사회적경제의 포용적인 확산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가 경제와 복지가 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비후보는 이날 "광주는 오랜 공동체 경험과 사회적경제 친화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3중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강화 ▲행정조직 확대 개편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전문인재 양성 ▲참여소득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5대 실천과제를 공약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장연주 광주시장 예비후보 "녹색·돌봄·로컬 일자리 열겠다"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정의로운 녹색전환으로 녹색, 돌봄, 로컬 일자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교통 등 녹색전환 일자리를 만들고, 행정동마다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연계한 로컬경제를 활성화하고, 로컬경제진흥원을 설립해 소규모 골목상권들을 특색있게 브랜드화해 쇼핑과 창업, 문화가 어울러지는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 주민생활밀착형 시설 확대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밀집지역과 상가주변 등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동구 13개 행정동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공건물의 주차공간 공유,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화순~광주 우회도로 개설과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부지에 주민친화시설 건립 ▲동적골 둘레길에 보행로 조성 ▲너릿재 명품 숲길과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황현택 서구청장 예비후보 '더 안전한 서구' 정책 발표

황현택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더 안전한 서구' 정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구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정차 문제 등이 서구 주민들의 불편 민원 1위다"면서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 더 안전한 서구를 위해 교통 불편 민원 해결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유 활성화 ▲가변 주차로 전면 확대 시행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이강 서구청장 예비후보 "청년 몰리는 꿀잼도시 조성"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청년에게 확실한 비전과 행복을 드리겠다"면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를 청년이 몰려드는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지역에 특화된 맛·재미·창업 지원부서를 신설해 '청년 창업의 마당'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구 무한도존(ZONE)'을 조성해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고, 15분 문화도시를 구현해 '맛·재미 문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